

# 체코 경제 및 무역동향

(2012. 12. 10)

## □ 체코의 경제 현황

### ○ 경제여건

- 유럽 재정위기와 EU 방침에 따라 체코 정부는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GDP의 3% 미만으로 낮추고 2016년 재정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은 주로 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으로 충당할 예정. 2012~2014년에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 세금시스템에 대한 긴축정책을 단행하고 정부지출은 2010년 GDP의 44.1%에서 2015년 41.1%로 낮출 예정.
- 체코 정부는 유럽의 국채위기와 관련하여 국채와 재정적자를 장기적으로 체코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보고 2016년까지 재정균형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국외수요 감소와 더불어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내수시장 경색이 현 체코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삭감 등 경기침체기에 행해지는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정치계와 국민들의 여론이 높은 가운데, 네차스 정부가 국회의 불신임 투표를 거치는 등 정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연금 및 세금 개혁을 비롯한 긴축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체코의 현 경기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경제성장

- 2012년도 경제성장률은 정부 예상치인 -1%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체코의 1사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전 분기 대비 0.8% 감소)한 데 이어 2사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전 분기 대비 0.2% 감소), 3사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전 분기 대비 0.3% 감소)하는 등 3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2012년에 실시된 공무원 월급, 사회보장비 인하와 부가세 인상, 추후 실행될 간접세 인상, 전기료 인상 등이 인플레이션 심화와 개인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2012년에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로존 위기가 다시 심화되어 국외수요가 감소하고 국내 건축정책으로 내수시장이 경색되면서 산업생산과 건설부문 생산 등이 감소

#### ○ 인플레이션

- 2011년 인플레이션은 1.9%였으나 2012년 9월과 10월에는 3.4%를 기록하였고 2012년 평균 인플레이션은 체코 중앙은행의 예상치인 1~3%를 상회하는 3.4% 선으로 전망됨.

#### □ 무역 동향

##### ○ 체코의 주된 교역상대국인 유로존의 경제침체 장기화

- 대EU 수출이 전체 수출의 85.7%(아시아는 3.7%)를 차지하고 수입도 대EU 수입이 전체의 68.5%(아시아는 17.8%)를 차지하는 등 교역상대국이 유럽에 편중되어 있음.
- 그리스 외에도 스페인, 이탈리아로 국채위기가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 유로존의 경기침체는 단기간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체코는 국채 비율이 비교적 낮고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럽 금융위기에 적은 영향을 받았음. 그러나 유럽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국외수요 감소와 더불어 건축정책으로 인한 내수시장 경색으로 2012년 하반기에 본격화된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2012년 상반기, 유로존 경제위기의 장기적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

- 수출은 8월 말 누계 1,0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고, 수입도 9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하여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줄어든 불황형 흑자를 시현

#### □ 우리나라의 대 체코 수출입

##### ○ 대 체코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부품의 2013년 수출은 현상유지 예상

- 2012년 1~11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체코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53.2%), 컴퓨터(10.8%), 평판 디스플레이-센서(3.4%), 자동차(2.7%), 기계요소(2.5%) 등임.
- 한국의 대 체코 주력 수출품목은 체코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공장에 납품되는 자동차 부품임. 현대자동차의 2013년도 생산목표가 2012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대 체코 자동차부품 수출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 현지 자동차 판매상황에 따라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상존

- 반면, 체코 및 EU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경비절감을 위해 가격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자동차부품 공급업체를 모색하고 있어 자동차부품 시장 확대의 호기임.
  - FTA 발효 후 수출이 대폭 증가한 컴퓨터는 2013년에도 수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은 현지 내수시장 경색으로 현상 유지 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대 체코 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 년과 2010 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11 년 FTA 실시 후 큰 폭으로 증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11 월)
한국의 수출	966 (71.3)	829 (-14.2)	771 (-6.9)	1,165 (51)	1,713 (47)	1,651 (7.1)
한국의 수입	369 (42.6)	395 (6.9)	337 (-14.5)	329 (-2.5)	501 (52.5)	526 (16.0)
무역수지	597	434	434	836	1,212	1,125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체코 통계청, 코트라 프라하 무역관 자체 자료>